

학회지 '신경정신의학' 발전방향 : 좋은 잡지로의 접근 지침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오 병 훈

Master Plan of Journal for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 Guidelines of Approaching to Good Journal

Byoung Hoon Oh,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To develop into a good journal, it takes constant and consistent time and the effort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has been tried and revised through workshop and research development subcommittec. As "an editor-in chief", I reviewed about the good journal evaluation principles especially four main aspects of the ISI journal selection process for Science Citation Index (SCI) and Index Medicus. These involve examination of basic journal publishing standards, editorial content, international diversity, and citation analysis. Aslo, I reviewed the important and problems of redundant publication and on-line publication. Through these current important issues, I suggests a Master plan for the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3;42(3):293-301)

KEY WORDS : Master plan ·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 Evaluation process · Redundant publication, On-line publication.

서 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간행위원회는 학회지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연구위원회에서는 일차적으로 학회지의 단기 및 장기 발전계획을 검토하며, 나아가 구체적 실천방향을 수행하는 것을 이차적 목적으로 삼았다. 본 글의 요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시 "학회지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추진되었던 단기, 장기발전 방향을 축으로, 지난 2년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워크샵에서 제시되었던 학회지 발전의 방향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국내학술지평가 사업에 '신경정신의학'의 후보등재작업과정의 경험 및 문제점 아울러 지난 일년 육개월 간의 간행위원회의 회

의에서 수렴되었던 내용을 주축으로 학회지 발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 론

신경정신의학의 발전방향을 공청회에 대한 실천방향, 학술진흥재단 등재의 중요성과 의학논문 심사의 기본원칙, 국제색인 데이터베이스가 요구하는 좋은 학술지, 특히 본 학회지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중복 게재(redundant publication)의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의 축을 이루게 될 온라인 학술지가 갖추어야 할 체재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경정신의학 공청회 실천방향^{1,2)}

2002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공청회에서 학회지 발전을 위한 실천방향으로 제안되었던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기 발전방향은 설문 조사 를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다. 결과에서 보면 현재의 학회지의 발간 횟수나 분량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구성 체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저의 수를 줄이는 방안이 제시

접수일자 : 2003년 4월 1일 / 심사완료 : 2003년 5월 2일

Address for correspondence

Byoung Hoon Oh,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verance Mental Health Hospital, 696-6 Tanbuldong Gwangju 464-100, Korea
Tel : +82.31-797-5745, Fax : +82.31-763-5745
E-mail : drobh@chollian.net

되었다. 따라서 원저의 수를 줄임과 동시에 종설, 증례, 특집 등의 논문을 증편하는 것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의학회 정학회지의 경우처럼 원저, 증례, 종설 외에도 논평, 국내외 논문 요약, 신간안내, 임상화보, 의학 강좌, 독자 편지, 예비보고, 퀴즈, 서평 등이 실리는 방향도 제시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된 점이다.

장기 발전방향의 목표로는 학회지 “신경정신의학”이 SCI나 Index Medicus에 등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향으로 영문 잡지 발간의 필요성, 외국의 유명 연구자들을 포함한 편집위원회 구성 등이 제시되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신경정신의학”은 질적인 논문 심사의 공정한 관리 및 회원들의 학회지에 대한 신뢰의 토대 하에 “신경정신의학투고규정”을 2003년 1월 1일 개정했으며, 심사체제의 수정, 보완은 물론 학회지의 체제도 변경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첫째, 학회지는 전 학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학회지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개원의 및 가능한 한 많은 학회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편성체계를 지녀야 함을 기준으로 했다. 둘째, 심사 불만에 대한 해결책으로 논문 심사시간의 단축 및 논문 게재율을 낮추는 데에 따른 잡음 및 학회지 질적 향상을 위해서 reviewer들의 자격 및 공정성을 위한 심사 지침, 이를 위한 워크샵 실시를 기반으로 했다. 현재 신경정신의학은 대한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KoreaMed에 등재된 이후 단기 목표로 학술진흥재단의 후보등재를 마치고 최종적인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 궁극적으로는 SCI search 또는 Medline에 등재를 장기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으로 첫째, 영문 잡지 발간으로 현행 학회지를 전적으로 영문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 학회지와 영문 잡지를 병행하며, ‘신경정신의학’에 발표되고 있는 논문 중에서 우수한 논문들을 다시 영문화하여 게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의학과 같은 과학잡지는 영어로 발간하는 것이 장점이 많으며, 국내 잡지로 SCI 혹은 SCIE에 등재되어 있는 거의 모든 잡지가 영어로 발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 외국의 유명 연구자들을 포함한 간행위원회 구성은 2004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셋째, 지속적인 좋은 연구들의 시행과 논문화의 동기로 우수한 연구자나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들에게 incentive를 시행하고, 계속해서 좋은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재는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학회지 발전을 위한 효율적,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03년 회기부터 전담 편집자(copy editor)가 임시직으로 부분적으로 수고해주고 있으나, 2004년 초기부터는 학회 정규 직원으로 전담 편집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학술진흥재단 등재의 중요성과 의학논문 심사의 기본원칙

학술진흥재단 등재의 중요성^{3,4)}

학술진흥재단은 우리나라의 학문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학술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학술지 평가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술지를 선정하고 중점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학문수준을 향상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술지 평가를 통하여 학회의 운영체계를 재정립하거나 학회의 분화 및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보서비스 기관의 학술지 선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 질 높은 정보서비스 제공 및 각 대학에서 교수 임용, 승진 등을 결정하는 좋은 정보가 될 것임을 주요 사명으로 하고 있다.

즉 학술지 평가의 목적은 첫째, 무한경쟁시대의 국내 학술연구의 역량 증진 둘째, 국내 학술지의 국제적인 수준으로의 성장 유도 셋째, 학술연구업적 평가의 객관적 자료 제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공식적인 잡지인 “신경정신의학”的 학술진흥재단 등재는 학회의 필수적인 정책사업으로 판단된다.

의학논문 심사의 기본원칙⁵⁾

일반적으로 의학논문의 요건은 창의성(originality), 결함없는 연구계획(complete study design), 정확성(precision), 간단명료함(clarity) 및 논리성(logic), 투고요령 준수(correct formatting to the guidelines for authors) 와 한글 및 영문의 자연스런 문장표현(practical expression in Korean and English)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에 맞추어 본 신경정신의학의 심사 기준은 의학논문 심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학술진흥재단에서도 자체평가의 기준을 두어 일차적으로 평가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듯이, 본 학회에서도 자체 평가를 위한 검증표를 2003년 6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생의학 학술지 원고의 통일 양식은 1978년 Vancouver group : 제1판이 발행되었으며, 1981년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에서 계속적인 수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의학논문의 구성에서 논문의 형식은 전문 학술지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본골격은 Vancouver group이 결정한 것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기본골격에는 1) 제목 및 저자(title and author) 2) 초록(Abstract) 3) 내용(text) : 서론(introduction)/재료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결과(results)/고찰(discussion)/결론(conclusion) 또는 요약(summary) 4) 참고문헌(references) 5) 표(Tables)와 그림(figures)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목의 내용에는 주의를 끌 수 있도록 중요단어를 먼저 사용하며, 연구목적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약자의 사용을 피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부제목을 사용할 때는 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colon을 찍어야 한다. 초록의 내용에는 논문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포함하되 간결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시제의 연구목적은 현재형 또는 과거형, 방법과 결과는 과거형, 결론은 현재형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Key word의 선택(Index term)은 가능한 한 적은 수를(3~10개) 선택하며 American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제정한 Medical subject heading terms에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서론은 가장 주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중요한 참고문헌만을 인용하며, 중요한 점이나 문제점 및 논문의 새로운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목적은 간단, 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재료 및 방법의 내용에는 연구대상(재료), 자료수집(실험조사) 및 자료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황한 서술형식을 피하고, 시간적 또는 연구 진행 순서에 따라 기술하여야 한다. 환자가 대상인 경우는 모집단의 특징을 기술하고 채택기준(inclusion criteria), 제외기준(exclusion criteria)을 명시하여야 한다. 결과의 내용은 본문에는 중요한 자료 즉 연구목표에 상응하는 성적만을 논리적 순서대로 재료 및 방법의 순서와 결과의 순서가 일치하도록 기술하고, numeric data는 주로 표나 그림에 제시하여야 한다. 고찰은 서론에 제시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며 어떻게 결과가 해답을 유도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시작은 'answer to the question' 중간은 'discuss the topic' 종결은 'restate the answer : importance of the work, application, implication, suggestion' 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서론에 기술된 내용 및 결과 자료 수치를 반복하지 않으며, 연구목적에 해당되는 내용만 논리비약 없이 고찰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연구자의 결과만 지나치게 나열하거나 본인의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타인의

결과를 생략하지 않으면, 반대되는 근거가 있으면 이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결론은 연구목적(가설)의 달성 여부에 관해 결과의 반복을 피해 저자의 생각을 포괄적으로 언급하며, 연구결론에 입각하여 향후 연구방향, 활용, 기대효과 등을 부언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참고문헌은 각 학술지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최신문헌 중 필요한 것만 인용하며, 교과서나 학위논문은 가급적 인용하지 말아야 한다. 표나 그림은 title에는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pecies or population을 포함시키며, footnote에는 연구방법, 결과, 의의, 통계적 유의성, 약어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림 설명에는 title은 구(phrase)로 만들어 표기하고 자세한 실험의 설명 및 약어의 해설 및 통계적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색인 데이터베이스가 요구하는 좋은 학술지^[6,7]

국제색인 데이터베이스가 요구하는 좋은 학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SCI와 Index Medicus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SCI

SCI는 ISI(Institute for Science Information)에서 제공하는 과학기술분야 논문의 인용정보를 데이터 베이스로 제공하는 것이다. 사설기관인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는 전 세계의 과학기술,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과학자, 교육자, 의학자, 연구원 및 사서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60년 정보 과학자인 Dr. Eugene Garfield에 의해 설립된 정보 서비스 회사이다. ISI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과학기술,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각 학술지를 입수한 후 색인 및 초록 정보를 제공하고, 학술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을 인용색인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그 권위를 전 세계 이용자들한테서 인정받고 있는 국제적인 기관이다. 즉 ISI사가 운영하는 SCI search(Science Citation Index)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검증된 색인체계이며, 자체의 엄격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적은 수의 잡지만을 색인하기 때문에 SCI등재 잡지는 권위를 인정 받게된다. SCI에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기초학문 등 5~6개 분야에 걸쳐 현재 8,600여개의 잡지가 등재되어 있고, 이 안에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잡지 26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과학 분야인 SCI Expanded에는 현재 5,900여개 잡지가 등재되어 있고, 이들 중 인용영향력지수(citation impact factor)가 큰 3,700여개 잡지가 SCI에 등재되어 있다. SCI에 등재

된 세계 정상급 저널 3,400여종 중에서, 미국은 1,400여종, 영국은 700여종, 독일은 300여종 등 선진국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3,000종의 저널이 경쟁을 벌여 200~300종인 약 10~12%를 새로 등재시키고 있다. ISI의 SCI Journal 선정 기준은 발간의 정기성, 국제관례에 따른 편집 여부, 저자 목록정보, 독창적인 분야의 학술지의 계재 내용과 엄격한 학술지 출판기준, 국제적 활용 가능성 여부, 학술지의 국제성이다. 그리고 신규 SCI 학술지의 경우에는 저자와 편집 위원들의 논문이 인용된 인용도 인용도 분석을 비롯한 네 가지 항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인용정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impact factor(IF)는 특정한 연도나 기간동안 인용된 빈도이며, 모든 잡지에서 1년간 발표된 논문의 참고문헌에 이용된 최근 2년간 논문 수를 해당 잡지의 한해 발표되는 논문 수로 나눈 수치를 뜻한다. 즉 IF는 어떤 특정한 잡지에 발표되는 논문이 어느 정도 자주 인용이 되느냐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인용지수는 특정 잡지의 권위와 영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되며, 정신과학분야에서는 Arch Gen Psychiatry가 가장 높은 IF를 가지고 있으며, 11.778 (2000년)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간되는 잡지 중에서 7종이 SCI에 등재되어 있고, SCIE에는 24종이 등재되어 있다. 순수 의학 학술지로는 1996년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EMM)을 선두로 Yonsei Medical Journal,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Science, Korean Journal of Radiology 4종이 SCIE에 등재되어 있으며, 최근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에서 발행하는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EMM)이 인용 영향력지수가 1.411로 높아져 금년초에 SCI로 승급하였다.

Index medicus

Index Medicus는 1960년부터 미국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안에 있는 국립의학도서관(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에서 발간하기 시작한 목록집이다. Index Medicus의 생의학(bio-medical) 잡지자료 시스템으로 약 3,700여종의 잡지가 올라가 있으며, 인터넷 온라인 시스템인 MEDLINE에는 약 4,500여종이 올라가 있다.

Index Medicus는 매년 전년도에 발간된 논문의 제목만 수록하여 발간하기 때문에 여러 권을 찾아야 하고, 논문을 직접 찾아야 필요한 논문을 고를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1980년대 후반 Index Medicus의 CD-ROM 제품인 Medline이 등장했으며 논문의 대부분을 초록까지

수록하여 각자에게 필요한 문헌을 PC에서 고를 수 있어 편리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NLM에서 National Center for Biomedical Information(NCBI)를 설치하고 PubMed라는 생의학 논문 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PubMed에는 3,700여개의 잡지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 2,000여개 잡지는 논문 전체(full text)를 제공하고 있어 매우 편리하다. Index Medicus에 국내 발행 잡지로는 SCIE에 등재되어 있는 4편 이외에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등 7개의 잡지가 등재되어 모두 영문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에서 발간되는 잡지는 약 130종이 포함되어 있고 일본어로 발행되는 잡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내 학술지가 한글로 발행되고 있다는 점도 등재에 어려움이지만, 더 크게는 외국에 배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Index Medicus에 등재되지 못하는 이유로 생각한다. Index Medicus의 등재는 미국 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Medicine ; NIH)이 운영하고 있는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NLM)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간 발행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년 3회 이상 발간하는 경우 연속 4회분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탈락되는 경우 접수에 따라 2~4년 후에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심사를 담당하는 기구를 Literature Selection Technical Review Committee(LSTRC)라고 부른다.

SCI, Index medicus 등재 기준

SCI나 Index Medicus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잡지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판에 관련된 사항

출판의 적기성이 가장 중요하다.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발간이 되어야 하는데, SCI 경우 적어도 3회 이상 적기에 잡지를 수령하여야 한다. 잡지의 형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어야 하며 적어도 논문의 제목, 저자 이름, 인용문헌 등을 영어로 되어야 한다. 동료 심사(Peer review)여부도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된다.

편집내용에 관한 사항

ISI의 선정기준과 심사과정에는 기본적인 학술지 기준(basic journal standards), 편집내용(editorial content), 국제성(international diversity) 및 논문인용도(citation

analysis) 등이 포함된다. 기본적인 학술지 기준에는 출판의 적기성(timeliness of publication), 국제 편집 규약(international editorial conventions), 영어 서지정보(english bibliographic information) 및 동류 비평(peer review)이 포함된다. 편집내용(editorial content)은 각 잡지가 해당 분야의 지식을 충분히 수록하고 있는지, 그 주체가 충분히 다루어 졌는지 검토한다. 국제성은 국제성과 지역성에 역점을 두며, 편집인, 심사위원, 저자들이 국제적인 명성과 다양성이 있는지를 평가 한다. 특히 심사위원의 명성은 논문 인용도에 의한 평가를 기초로 한다. 논문 인용도는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인용도가 높은 잡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중복 게재(Redundant publication)의 문제점⁸⁻¹⁴⁾

중복게제의 중요성,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학 분야의 학술지에서 중복게재의 예는 드물지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의학윤리, 의학정보의 교란 등의 면에서 중대한 문제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학술지 편집인으로서는 국제저작권법(international copyright law), 윤리 지도(ethical conduct), 정보자원 효율성(cost-effective use of resources) 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예방과 사후 처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중복 게재는 국내외의 문헌 검색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점차 용이하게 발견되며, 최근 인터넷을 통한 검색 및 접근이 원활하여 짐에 따라 중복 출간 판정 기준이 점차 엄격하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술지 편집인은 이러한 사안에 대면하게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복게재의 정의를 보면, 중복(redundant) 혹은 이중(duplicate) 게재라 함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 중첩된 논문을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 학술지에서 게재 거부된 원고를 게재하는 행위는 중복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용 가능한 이차 게재(Secondary publication)의 정의

중복출간과 구분하여 정당화 될 수 있는 이차출간(secondary publication)을 국제편집인협의회에서 명시된 중요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는 원전을 출간한 학술지 편집인과 이차출간을 하려는 학술지 편집인 양쪽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둘째, 이차 출간한 논문의 표제지의 각주에 이 논문 혹은 일부가 이미 출간되었음을 독자, 상호심사자, 색인초록기관이 알 수 있도록 명시

하고 원전을 기록하여야 한다.

중복게재에 대한 편집인의 역할

일반적으로 논문출판과정에 관여하는 주체들(저자, 편집인, 발행인, 논문심사위원, 학회)등이 각기 지켜야 할 의무로는 논문의 작성과 게재에서의 윤리, 학문적 부정직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권리로는 논문심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논문 심사의 윤리에는 연구자의 생각을 훔치는 행위 및 경쟁자의 논문을 배척하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편집인은 저자를 보호할 의무와 함께 이중게재와 같은 부정행위를 감시하여야 할 의무도 지닌다. 부정행위가 파악이 된 경우에는 이미 출간된 논문은 물론 심사과정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즉, 편집인은 논문출판의 윤리의식에 투철하여, 원고심사 단순한 게재거부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정행위의 추적에 대한 도의적 의무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1997년에 설립된 간행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는 연구와 논문출간의 윤리적 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올바른 간행 규범”을 제시하였다.

즉 부정행위에 대한 강도에 따른 순차적 제재 조치에 관한 기술로서, 이러한 제재 조치는 1개항 혹은 여러 개항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1) 원칙을 잘못 이해하여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교육적 서한 발송 2) 향후의 부정행위에 대한 전책과 경고의 서한 발송 3) 해당 기관장 혹은 연구비 지원 기관에게 공식적 서한 발송 4) 중복출간 혹은 표절에 대한 고지의 글 게재 5) 위반사항의 전모에 대한 편집인의 글 게재 6) 위반에 책임 있는 저자 개인, 연구진, 혹은 연구 기관에 일정 기간 원고 투고 금지 조치 7) 타 학술지 편집인과 색인기관에 알리면서 공식적으로 해당 학술지에서 삭제 8) 해당 사례를 정해진 과정에 따라 조사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의협 혹은 기타의 공공 기관에 고지함을 주요 지침으로 명시하고 있다.^{8,10)}

온라인 학술지의 현황과 전망¹⁵⁾

온라인 학술지의 현황

현재,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은 인쇄된 학술지로 출판하는 과정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병행하면서 점차 온라인의 방향으로 변화, 확대되고 있다. 향후 학술지

발행의 성격은 출간의 정시성이 없어지고 심사 형식의 변화가 일어나며, 동영상이나 소리가 포함되는 논문이 보편화될 것이다. 국내의 경우, 온라인 학술지의 발전은 인터넷의 구축으로 각 학술단체들이 홈페이지를 구성하면서 학술지의 자료를 회원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핵심단어나 저자명을 이용하여 논문의 제목 등 기본 서지사항을 검색하는 것이었으나 곧 초록이 첨부되었다. 현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술단체는 초록에 부쳐 전문(full text)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온라인 학술지의 체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일부 학술단체에서 인쇄된 공식학술지와 별도의 순수 온라인 학술지의 출간을 시도한 경우가 있었지만 독자의 호응이 좋지 않고 상업성의 문제 등으로 대부분 포기하고 인쇄된 학술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극히 일부 학술지가 병행하고 있는 온라인 학술지 안에 온라인 만의(online only) 논문을싣고 있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온라인 학술지를 표방하고 있는 학술지도 대부분은 출간된 학술지를 열람하는 정도이며 원고의 온라인 접수와 심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매우 적다고 한다. 접수와 심사과정의 추적(review tracking) 등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외국 학술지의 경우 자체가 소유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학술지들이 “Manuscript central”, “Editorial manager”, “Rapid review” 등 여러 학술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수준에 있다.

온라인 학술지의 전망

온라인 학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학술지 자체의 홈페이지가 있어야 하며, 안에 잡지에 대한 소개, 저자를 위한 투고규정과 유의사항, 온라인 투고 방법, 광고에 관한 사항, 구독방법, 기타 관련 기관에 대한 링크 등을 포함시키면 된다. KoreaMed, MEDLINE, SCI search 등 색인기관에 링크아웃 시킨 온라인 학술지는 웹 기반 하에 전 세계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24시간 열람할 수 있어 교육·연구는 물론 임상에서도 실시간 이용하면서 evidence-based practice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색인기관에 등재가 우선이고 전문 링크아웃이 되어야 한다. 특히 온라인 학술지는 현재와 같은 신속한 정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인쇄본보다 일찍 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online first), 심사과정이 끝난 시점 또는 일주일 간격으로 논문을 올림으로써 독자에게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저자에게는 빠른 출간으로 모두에게 유

익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학술지는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 온라인 도서관(online library)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온라인 도서관을 활용함으로써 연구, 교육기관의 많은 도서관들은 적은 비용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많은 종류의 잡지를 온라인 구독할 수 있는 장점이 알려지고 있다. 현재 실제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원고의 온라인 접수(Online submission)를 보면 국내에서는 계획단계에는 있지만 체계적인 온라인 접수를 하고 있는 학회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 접수의 장점으로 “1. 투고시 배달 시간이 절약된다. 2. 원고를 프린트하고 사진을 인화하는 비용이 필요 없다. 3. 사진의 질을 출판하는 것과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다. 4. 저자가 심사중인 논문의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5. 심사위원 및 저자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절약되어, 충분한 심사 기간 제공과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6. 오자 등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7. 학술지의 전산화 작업을 용이하게 한다.” 등이 지적되고 있다.

물론 온라인 접수는 웹상에서 처리되므로 논문에 대한 독자의 심사가 활발해지고, 독자의 평이 시간에 관계없이 논문에 추가되므로 긍정적, 부정적인 면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출간에 관련된 인력이 덜 필요하고, 업무처리가 신속 정확해지며 관리비용에 따른 출간비용(저자 부담 비용 포함)이 절감되고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온라인 접수는 주요학회에서 보급될 전망이다.

현재 신경정신의학도 온라인 작업을 KoreaMed와 협조하에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일차적으로 온라인 접수 및 간행위원회와 reviewer들 간의 업무 및 심사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작업하는 것을 금년 중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결 론

이상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공식잡지인 “신경정신의학”의 발전방향을 지난 2001년도 실시되었던 공청회에 대한 실천방향, 학술진흥재단의 국내 학술지 평가사업의 현황과 의학논문 심사의 기본원칙, 국제색인 데이터베이스가 요구하는 좋은 학술지, 특히 본 학회지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중복 게재의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의 축을 이루게 될 온라인 학술지가 갖추어야 할 체제 면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볼 때, 좋은 학술지가 된다는 것은 첫째, 질 좋은 논문이 많이 실리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응용이 되어야 하는 점이다. 논문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적합하지 않은 논문은 과감하게 계재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문을 많이 실어야 하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측면에서 학회지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향은 결국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과학 학술지 색인인 SCI(Science Citation Index),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tended) 또는 Index Medicus에 등재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색인지에 등재된다는 것은, 학술지의 형식은 물론 그 잡지의 질을 인정받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색인지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학회지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뇌과학의 발달로 정신과학이 신경과학(Neuroscience)에서 추구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회원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은 머지 않은 장래에 “신경정신의학”이 SCI나 Index Medicus에 충분히 등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회원 각자들의 노력은 물론 학회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즉 간행업무를 주관하는 전담 편집자의 채용 심사료의 인상 및 간행위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워크샵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중심 단어 : 학회지(신경정신의학) · 좋은잡지 · 발전방향

REFERENCES

- 1) 남궁기, 이병옥.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단기발전계획. 신경정신의학 2002;41:585-588.
- 2)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장기발전계획. 신경정신의학 2002;41:589-591.
- 3) 권길화. 의학학술지 평가현황-한국학술진흥재단의 평가사업,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Workshop;2002. p.59-68.
- 4) 한상완. 학회지 발전과 평가기준. 신경정신의학 2002;41:592-601.
- 5) 민양기. 논문심사의 기본원칙,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Workshop; 2002. p.15-24.
- 6) 함창곡.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요구하는 좋은 학술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Workshop;2002. p.5-14.
- 7) 황호정. SCI 저널의 선정기준. 신경정신의학 2003;42:171-177.
- 8) 임정기. 이중게재(doublepublication)의 문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Workshop;2002. p.25-34.
- 9)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Ann Intern Med 1997;126:36-47.
- 10)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J Urol 2000;163:249-252.
- 11) Rogers LF. Duplicate publication or not? Case 1 (letter). AJR 2000; 174:1789-1790.
- 12) Bailey BJ. Duplicate publication in the field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02;126:211-216.
- 13) Tramer MR, Reynold DJ, Moore RA, McQuay HJ. Impact of covert duplicate publication on meta-analysis: a case study. BMJ 1997; 315:635-640.
- 14) 임정기. 중복출간에 대한 편집인의 글. 대한방사선의학회지 2001;44:397-398.
- 15) 함창곡. 온라인학술지가 갖추어야 할 조건,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Workshop;2003. p.7-9.

□부록□**면집에 관련된 단체와 홈페이지 주소****1. 세계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 www.wame.org)**2.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 www.icmje.org)**3. 과학편집자회의**(Council of science Editors : <http://www.councilscienceeditors.org>)**4. 유럽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 <http://www.ease.org.uk>)**5. 미국의학저술가협회**(American Medical Writers Association : <http://www.amwa.org/index.html>)**6. 세계학술지 투고규정 모음** (<http://www.mco.edu/lib/instr/libinsta.html>)**7. 출판윤리위원회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 <http://www.publicationethics.org.uk/>)****8. SCI search의 잡지 선정기준** <http://www.isinet.com/isi/hot/essays/><http://www.isinet.com/isi/hot/essays>**9.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 www.isinet.com)****10. Index Medicus 신청과 심사에 관련된 자료**

(Journal Selection for Index Medicus/MEDLINE :

http://www.nlm.nih.gov/pubs/factsheets//j_sel_faq.html)

□부록□**한국학술진흥진단 학술지평가 신청안내
증빙자료 목차**

1. 심사절차
2. 논문 1편당 심사위원 수
- 3-1. 편집위원 연구실적
- 3-2. 편집위원 평균 재임기간
4. 게재율
5. Cyber 출판여부
6. 논문초록 및 주제어 표시형태 (제출된 학술지로 대치)
7. ISSN부여
8. 학술지명, 논문명, 저자명 표기형태 (제출된 학술지로 대치)
9. 편집위원 및 임원 명단 및 소속 명시 (제출된 학술지로 대치)
10. 제1저자 및 공동저자 구분 (제출된 학술지와 특고규정으로 대치)
 - 11-1. 정시발행
 - 11-2. 발행예정일 규정
12. 년간 학술지 발간횟수 (정시발행 항목으로 대치)
13. 논문투고자의 전국성 및 국제성 (게재율 항목의 양식으로 대치)
- 14-1. 학술지역사 및 회원수
- 14-2. 회원명부

15. 학회 임원 및 편집위원 명단